

## RCA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에 황영진 목사

“차세대 위한 행사,  
신학생 후원에 적극  
나설 것”



신임 회장 황영진 목사

RCA한인교회협의회 회장에 황영진 목사가 당선됐다. 13일 오후 9시 매디슨수트호텔에서 열린 한인교회협의회 전국총회에는 3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황영진 목사는 “한 해 동안 교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신임원진과 함께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며 회원 간의 유대 강화와 교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RCA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황 목사는 임기 동안 목회자 수양회, 차세대 청소년을 위한 지저스 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이와 함께 교단 신학교와 신학생 후원, 해외선교를 위한 일에 협력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원진은 수석부회장 김석원 목사, 동부 부회장 정창수 목사, 서부 부회장 오유석 목사, 총무 김학룡 목사, 서기 유승례

목사, 회계 조대형 목사가 선출됐다. 총회에 앞선 1부 예배에서는 김종국 목사(총회장, 뉴저지새인약교회 담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출 14:13-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과거에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은혜 주셨던 순간들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2010년도 승리하는 한인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 해외한인장로회 서울서 총회... 총회장에 정해진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신구 임원들이 함께 인사하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가 18일 오후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월드컵로리아센터에서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제35회 해외한인장로회 총회(KPCA, The 35th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for 7 Million Koreans Abroad)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과 호주,

176표를 얻어 121표를 얻은 권일연 목사(뉴저지교회 하나님의교회)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해진 신임 총회장은 “정말 좋은 총회, 은혜로운 총회, 맛있는 총회를 만들어 보려 한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올해 총회 주제를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로 나아가는 총회가 되도록 최

인장로회’에서 ‘해외한인장로회’로 바뀌게 하셨다”며 “이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적인 일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복된 허락이고, 특히 한국 총회 초청으로 올 총회를 서울에서 열리게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중대한 의미와 큰 과제를 알게 하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 “미래와 세계 향해 최선 다해 봉사할 것”

중남미 등 전세계 한인교회 목회자 부부와 장로, 남선교회·여전도회 회원 등 5백여명이 언더우드홀을 가득 메웠다. 속회 후 곧바로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총회장 정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장로부총회장 전용기 장로(웨스트힐장로교회) 등이 무난히 당선됐다. 유일하게 선거를 치른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재동 목사(수도교회 서울장로교회)가 299표 중

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서 총회는 오후 2시 개회예배로 문을 열었다. 정해진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서욱수 전 총회장이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행 13:1-3)’를 주제로 설교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교회에 대해 설교한 서전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지난 35년간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 교단의 이름이 ‘미주한

예배는 성회회를 다짐하는 성찬식으로 이어졌으며, 직전총회장 김인식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예배 기도는 부총회장 백홍기 장로, 성경봉독은 서기 이승재 목사, 특송은 LA장로성가단이 각각 맡았다. 예배 후 잠시 휴식을 취한 총대들은 오후 4시경 다시 모였으며, 속회 후 임원 선출 등이 계속된다. 총회는 목사 총대 175명 중 165명, 장로 총대 129명 중 96명이 출석, 총 304명 중 261명으로 시작됐다. (이대용 기자)

## 침체에 빠진 미국 기독교? 교회 수는 계속 증가중

미국 주류 개신교단의 교세 축소는 교회 수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전체 교회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침례교(SBC) 산하 교회

밝혀졌다. 이는 미국에서 감리교와 침례교의 교회 개척이 한창 이뤄지던 1795년과 1810년 사이에 매년 3천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보다 많은 수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원 에드 스텡처는 보고서에 통해

세워진다면 미국에서는 3세대 내로 기독교 인구와 교회 수가 현재의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지역 내 교회 수의 증가는 그 수가 많은 적든 반드시 교인 수 증가로 이어지며, 또한

### 매년 평균 4천여 교회 새롭게 세워져... 개척 열망 높아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류 개신교단의 교세 축소가 보고되어 온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5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4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연 것으로

“교단들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복미 개신교회들의 교회 개척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축적된 교회 개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예측할 때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는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활발한 교회 개척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더 세우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라고 스텡처는 소개했다. (손현정 기자)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 21세기 영적대추수를 준비하는 HARVEST 세미나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하베스트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 1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자의 준비-성령충만

영혼을 얻는 일이 목회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현장의 생명은 결국 목회자 자신이 성령충만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회심과 변화, 그리고 성령은 성령이 일하시는 목회현장의 증거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령충만은 목회의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성령의 시대, 영적대추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재까지 경험적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에 온전히 열린 마음과 강력한 사로잡힘,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출발이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이런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 부분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 세미나 주강사



**김종필 목사 부부(엘리아김 미니스트리)**  
김종필 목사는 미국에서 김은주 사모는 필리핀에서 지구촌 최대의 부흥을 주신다는 소명을 받아 마지막 대추수와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도의 용장들이다. 부흥과 준비기도 그리고 선교는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군대를 통한 준비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사역하고 있다.  
www.elijahkim.org

### 2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 현장의 준비-전문성

그러나 성령 체험만으로 목회자 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라는 말이 암시하듯 현장사역을 위한 전문성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 영성에 치중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학위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설교도 좋은 목회현장은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인적 영성만으로 목회가 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역을 해 낼 수 있는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개인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질 때 살아 숨쉬는 건강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게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영적 교제가 살아 있는 소그룹, 삶의 변화가 있는 제자훈련, 심신의 도를 실천하는 역동적 사역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광스런 생명의 예배 등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적 노하우들 - 이번 세미나에서 초점을 두게 될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 3 성령의 시대를 향한 사모의 준비-소명 재확인

목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사모의 준비입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진리인 듯이 사모가 살아야 목사가 산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그릇과 사역의 연속성은 결국 사모의 준비, 즉 사모의 영적, 인격적 그릇의 크기만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모는 목회현장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뿐 아니라 가장 큰 무기이자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모는 영적 재충전의 우선순위에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명의 재확인! 열악한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사모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힘있게 섬기려면 영적재충전과 사모라는 소명에 대한 철저한 자기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사모의 영적 재충전 및 소명의 재조명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회복과 치유, 소명을 확인하는 복된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세미나 일정

주후 2010년 8월 2~5일 (월-목)  
온라인등록 [sarangtree.com](http://sarangtree.com)

장소 Radisson Hotel LAX  
6225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LA공항에서 24시간 호텔 무료 셔틀이 제공됩니다)

등록비 (3박 4일 호텔 숙박료, 식사/간식비, 세미나 교재 포함)  
-5월 31일까지 등록시 목회자 \$275 (개인), 사모 \$200 (개인)/부부 \$425  
-6월 30일까지 등록시 목회자 \$300 (개인), 사모 \$225 (개인)/부부 \$475  
-7월 31일까지 등록시 목회자 \$325 (개인), 사모 \$250 (개인)/부부 \$525  
(세미나 초과 등록시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등록마감 선착순 300명 (초과 등록시 대기 명단 있음)  
문의사항 하베스트 세미나 담당자  
213) 386-2233  
LASarang@gmail.com

주관  
ELIJAH KIM MINISTRIES  
LA 사랑의교회  
LA Sa-Rang Community Church  
LA 사랑의교회  
www.lasarang.org



테네시 주의 무너진 집 앞에서 도착한 복구팀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재민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 테네시, 교계 및 NGO 복구작업 속속 도착

## 전 재산 잃어버리고... 눈물로 구조팀 맞아

100년 만의 대홍수로 피해가 극심했던 테네시 주에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동안 15인치 이상의 엄청난 강수량으로 발생한 이번 홍수로 테네시 주는 15억불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가 그친 지 11일이 지난 14일 현재, 식수, 음식, 신생아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과 구조품 배포가 한창이며, 홍수 피해 잔해물 제거를 돕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회 및 구호단체(NGO)들의 도움이 활발하다. 크라이즈 징키워드 씨(웨스트내쉬빌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단지(UMNS)에서 “내쉬빌, 콜롬비아, 페그렘, 스프링필 등지에 도움을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연합감리교단 차원에서 구호품과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소속 긴급구조팀에서도 출동해 수재민들을 도왔다.

협동 목사도 동행한 레스 파머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다. 이후 불신과 충격, 좌절감과 분노 등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면서 “

그들에게 이 같은 감정은 다분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판단한다. 재난을 맞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인들의 피해상황의 정확한 집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내슈빌한인봉사센터 이사장 전상의 목사는 “각 한인교회를 통해 피해자 통계 조사를 시작했지만, 집계가 쉽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침수되거나 가정집 훼손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전 목사는 “다행히 복구센터가 여기 저기에서 열렸고, 연방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안정되어가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필 브렛슨 테네시 주지사는 피해복구액 모금 캠페인을 선언했으며, 자원봉사자 및 정치인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폐허가 된 피해지역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다.

〈권나라 기자〉

# 자물쇠에 용접까지... 흑인 인권운동의 산실 어찌다가

최근 남부기독교교회지도자회의(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SCLC)가 리더십 간의 충돌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AJC 보도에 따르면, 작년 SCLC 회장후보로 출마했던 마클 허친스 목사(Markel Hutchins)는 17일(월) SCLC 본부 사무실(이번 예비뉴 위치)에

하나가 자물쇠를 풀었으나, 허친스 목사는 오히려 그 직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나섰다.

찰스 마티스 대변인에 따르면, 허친스 목사는 월요일 오후 9시에서 9시30분 경 사무실에 들어왔으며, 자물쇠도구와 용접용 도구를 가지고 왔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누군가가 수상히



마클허친스목사/AJC

되고 있던 SCLC 리더십 갈등 구조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SCLC 공동창설자 마틴 루터 킹 Jr 목사의 막내딸 버니스 킹이 포함된 반대 파쪽에서는 허친스 목사 측을 “배반자 혹은 반체제인물(renegades and dissidents)”로 명명하며 대립구도를 이뤄왔다. 버지니아주의 실비아 터커 의장은 “허친스 목사는 SCLC에 대한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사무실을 훼손시킨 그의 행동은 그가 SCLC를 조정하기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분개하면서 “한 개인의 무모한 행동이라고 여

겨진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던 SCLC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친스 목사는 지난해 SCLC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버니스 킹이 선출되면서 패배의 쓴 잔을 맛봤다. 그는 또 랠레이 트래멜 전 의장이 이끌던 리더십에서 결정한 20명의 보드멤버에 속해있으나, 현재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화 되기도 했다. 한편, 실비아 터커 의장은 “허친스 목사는 한번도 보드 멤버인 적이 없었으며, 잠정적 회장이나 회장으로 선출된 적도 없다. 이 같은 그의 행동은 범죄이며, 크게 개탄할 만한 일로 혐오범죄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SCLC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민권운동이 본격화되던 1957년, 흑인 지도자들이 주도해 창립한 인권운동 단체다.

〈권나라 기자〉

## 킹 목사 주도 SCLC, 허친스 목사와 반대파 갈등의 골 깊어져

들어와 컴퓨터 등 물건을 옮긴 후 뒷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용접해 닫아버렸다. 그는 “본인은 문을 용접해 닫아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며 “SCLC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사무실 내부 물건 보호권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민간 문제(Civil Matters)로 여기며 아무런 저지 없이 돌아갔다. 마티스 대변인은 허친스와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갔으며, 사무실 내부 물건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문제가

## 이번 여름은 워싱턴 DC에서 인턴으로!

### 에듀 워싱턴, DC내 미국단체에서 인턴쉽 기회 제공

교육 컨설팅 회사인 에듀 워싱턴(대표 정선경)에서 한인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여름 방학 동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지역의 전문단체에서 인턴으로서 일할 기회를 제공

한다.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더 큰 사회와 세계를 위한 기여에 눈뜨게 하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배양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은 영주권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Habitat for Humanity, Little Lights Urban Ministries, Martha's Table, Family Matters 등 워싱턴 DC내 신뢰할 만한 미국 단체에서 4주 동안 130시간을 근무하면서 매주 1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저소득자들을 위해 주택을 지어 주거나, 저소득 가정의 어린

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숙자들과 빈곤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단체들이다. 아울러 인턴들은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과 연방 국회의사당도 방문하게 된다.

에듀 워싱턴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회 복지사 김정수씨는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단체로서 공신력있는 단체들로 선별했으며, 인턴들이 단체의 직원들과 여러가지 실무에 참여하도록 세심한 준비를 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뜻깊고 보람있는 인턴쉽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703-595-9583 〈조요한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방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단지 \$9.99/월에 이 모든 혜택을!**

**급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30일 환불보장**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미국에서 나만의 한국전화번호를 갖는다!”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당, 5월 16일-5월 31일 가입자에 한함!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 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기존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제공!

• 폰어댑터 무료대여!

• 간단한 설치 및 이용방법

• 텍스 및 추가 수수료 없음.

• 365일 친절한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

• 최상급 회선을 통한 뛰어난 통화품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Verizon, AT&T 가정용 전화완전대체**

**1-800-872-2902** | 1-800-875-8318 고객센터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아·이·토·크·비·비 iTalkBB**

iTalkBB의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중일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5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내 서비스를 재차하는 경우 \$69.99의 위반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본인 동의한 송금액을 할당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신 가입자에게는 재정보(020)36614 부피입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참조하십시오. 고객센터번호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용지 대신 인편하고 2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참으로 그는 이 시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

## 남가주 총신대 총동문회 주관, 故 김의환 목사 추모예배



故 김의환 목사 추모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 이재일 기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한국시간 14일 오전 9시에 총신대학교 교정에서 학교장으로 발인예배를 드린 시간, 남가주에서도 지난 10일 소천한 고 김의환 목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재미 남가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주관, 故 은석(恩石) 김의환 목사 추모예배를 지난 13일 만리장성에서 드렸다.

이날 추모예배는 총신동문회장 윤성원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총동문회 자문위원 김상규 목사의 기도, 부총무 지윤성

목사의 성경봉독, 총신대 명예교수 김득룡 교수의 설교, 미주총신대 총장 조해수 목사의 약력소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 총회장 이재영 목사, 벨엘장로교회 담임 변영익 목사의 조사, 동문회 자문위원 조천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이어졌다.

김득룡 목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고 김의환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총신대 초대 총장, 칼빈대학교, 캄보디아 국제신학교 총장으로 현재까지 섬겨오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의환 목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심어 주었다. 그와 함께 지냈던 시간, 참으로 그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김득룡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다”며 “김의환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제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조사를 전한 이재영 목사는 “김의환 목사님은 항상 세계를 가슴에 품고 21세기 세계 선교는 총신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을 이어받아 지금 한국이 세계 선교 파송국 2위가 됐다. 땅에 떨어진

씩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김의환 목사님의 길을 항상 되새기며 그를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동문회 총무 안기정 목사는 고 김의환 목사의 장남인 김삼열 목사(캘리포니아 포모나 소재, 비전마을교회 담임)가 한국에서 하관식 등 모든 일정을 마친 후, 28일 입국하면 함께 위로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故 은석(恩石) 김의환 목사는 1933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 1962년 미국 칼빈신학교를 졸업하고(B.D.) 1963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했으며(Th.M.), 1966년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그후 1975년까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명저인 <도전받는 보수 신학>을 비롯, <복음과 역사>, <기독교회사>, <성경적 축복관>, <현대신학개설>, <복음주의 선교 신학 동향> 등 많은 저서를 펴냈다.

1976년부터는 미국 나성한인교회를 개척해 1995년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했으며, 1995년 고국으로 돌아와 총신대학교 초대 총장을 4년간 역임하고, 퇴임 후 4년간 성복중앙교회를 담임했다. 2002년 칼빈대 2대 총장을 맡으며 학교로 돌아온 그는 최근까지 일본선교회(OMF) 대표를 맡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원순 여사와 3남 2녀가 있다.

〈이재일 기자〉



강일용 목사, 이종철 목사, 이승재 목사, 김민섭 목사, 고승희 목사, 고태형 목사, 김병학 목사, 박승규 목사, 송병주 목사, 김형구 목사

## 동부교협 '친교외 협적'의 조찬모임 가져

### 발달장애우 단체 'COF' 후원 결정 하기도...

동부지역교회협의회(회장 강일용 목사)가 5월 조찬모임을 13일 아침 7시 30분 COCO'S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회장 강일용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를 비롯해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김민섭 목사(엠마오장로교회),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김형구 목사(하늘샘교회), 박승규 목사(동부사랑의교회),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이승재 목사(기쁨장로교회), 이종철 목사(선화선교회), 정동석 목

사(나성교회) 등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날은 발달 장애우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 'Cricle of Friends(이하 COF)'의 후원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1천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동부지역 연합찬양집회를 공지하고 협력을 다졌다.

강일용 목사는 “동부지역의 부흥을 위해 교회 간 친교와 협력이 잘 이뤄져 있다”며 “연합찬양집회도 교회마다 순회로 열리며 다른 교회들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역 연합찬양집회는 6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선한청지기교회에서 개최된다.

〈박상미 기자〉

## 남가주동신교회, 7월 2일까지 장학생 모집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가 제7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남가주 거주 한인 및 타민족 기독교인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GPA 3.0이상)이며 신실한 믿음의 소유한 자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2010년도 가을 학기에 정규대학, 대학원 재학 및 진학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1부와 최근 성적증명서 1부, 에세이 1~2페이지, 추천서 1부, 2009년도 소득세 신고서 1부(해당자만) 등이다. 신청방법은 남가주동신교회 홈페이지(dongshinchurch.com)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교회 장학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7월 2일까지다.

문의: 714-680-9556  
〈이태근 기자〉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가 제7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남가주 거주 한인 및 타민족 기독교인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GPA 3.0이상)이며 신실한 믿음의 소유한 자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2010년도 가을 학기에 정규대학, 대학원 재학 및 진학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1부와 최근 성적증명서 1부, 에세이 1~2페이지, 추천서 1부, 2009년도 소득세 신고서 1부(해당자만) 등이다. 신청방법은 남가주동신교회 홈페이지(dongshinchurch.com)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교회 장학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7월 2일까지다.

문의: 714-680-9556  
〈이태근 기자〉

## “대교회주의보다 한 영혼 사랑하는 목자 되길” 미주총신대학 교 제32회 졸업예배 드려

미주총신대학교(총장 조해수 박사) 제32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이 지난 5월 15일 굿뉴스 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신학

대학부 11명, 교회음악대학부 2명, 기독교교육학부 1명, 목회학 석사 8명, 신학 석사 2명, 교육학 석사 2명, 목회학 박사 2명, 교육

학 박사 1명, 명예박사 2명 등 총 3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총장 조해수 박사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확고히 서서 확



조해수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실한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며 “대교회주의를 경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가 되길 바란다”고 훈사했다.

특별히 이번 졸업예배에 참석한 서정배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신학교를 졸업해야 목사가 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나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며 “엘리아의 영감을 감질로 받았던 엘리사처럼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미주총신대학교는 대학부(4년제), 신대원(3년제), 대학원(2년제), 박사과정(3년제) 등의 가을학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를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칼라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치-메리리 콘도상가 2층 **일서+웨스턴 코너**

■ [ 인터뷰 ]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김한욱 목사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 부흥에 명확한 해답”

‘불신자 전도’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다. 그러나 교회내에서 전도는 마치 하나의 의무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나서는 선한 목자의 간절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김한욱 목사는 전도는 방법과 기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영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개발한 해피전도 시스템은 2006년 12월 한국에서 450여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1차 해

피데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500개 교회가 이 시스템을 적용해 40% 이상 교회 성도수가 성장을 체험했다. 8주간 진행되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교회에 적용되면 80% 이상의 성도가 전도에 동참하며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말씀에 대한 100% 믿음과 실천으로 무장해 나간다.

한국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영진 목사)에서 개최돼 김한욱 목사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한욱 목사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양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여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선원교육을 받은 후 18살 때 외항선을 탔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원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언제나 성경을 통해 위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선박 생활에서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원 생활 2년이 지나면서 선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다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척 8년째가 되었을 때 장년 출석 120명의 교회가 영적으로 시험을 받으면서 6개월 만에 40명이 교회를 떠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잠으로 모든 목회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2005년 절망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 부흥의 꿈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고 2007년 봄 80명의 성도들이 8주간 해피데이 전도를 적용하여 진행된 결과 장년 출석 성도가 130~150명으로 급속히 부흥했습니다.

새안양교회의 부흥은 한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교회들과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를 진행한 교회는 평균 20~30% 이상의 장년 출석의 성장을 일구어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 이상의 부흥을 얻은 교회도 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전국교회에 전파하기 위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전국 컨퍼런스를 통해 한 해에 약 30,000여명 이상의 성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전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성결대학교 객원 교수로 젊은 학생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창안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2006년 5월 대한민국 종교인구 총조사 결과 한국은 지난 10년간 불교와 천주교는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144,000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 유럽지역을 방문했을 때 크고 웅장한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 있고, 노인 몇 명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들과 똑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전도를 통하여 기독교 인구의 감소를 막고 침체를 벗어나 부흥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때에 느헤미야가 8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해피데이



김한욱 목사

이 전도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한국에서는 해피데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관계 전도를 통해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그냥 두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여 8주간 강력하게 교회 출석성도 약80% 이상 이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스템 전도란 모든 것이 조직화 되어 있고 동력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20%인 원으로 구성된 진행위원회는 조직(진행위원회)과 영성(기도)로 8주간 동안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화물칸을 이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이 성도들이 전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해피데이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행위원이지요.

해피 전도 시스템으로 불신자 전도, 정적에 성공 사례가 되는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많은 교회들이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서울 신길동 신길교회(이신웅 목사)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8주 동안 무려 5,932명의 새 신자가 등록, 기존 3,000여 성도들을 감쪽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놀랐지요. 전남 장흥중앙교회(김정렬 목사)는 6,000여명의 성도들이 5,000여명의 새 신자를 등록시켰고, 2010년 4월에는 포항갈보리교회(최완호목사)는 3,000여명의 성도들이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290여명의 새 신자를 등록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해피데이를 적용한 교회들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주 목회자님들께 해피데이 전도 컨퍼런스 초청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아직 미국 지역에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전도인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2,500교회 이상이 적용한 결과 90% 이상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해피데이 전도는 이런 교회들에게 큰 부흥을 가져 올 수 있는 관계 전도입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어떤 교회든지 부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오셔서 미주 이민교회에 큰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문의: 310-951-3153

(지재일 기자)

예장 미주총회(합동)와 합동미주총회 통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합동)(총회장 이희태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미주총회(총회장 홍명철 목사)가 통합한다.

양 교단의 통합을 위한 정기총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에서 열리며, 이번 정기총회 후 교단은 2백여 개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회에서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서정배 목사가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장소 : 2801 W. Temple St. LA., CA 90006  
문의 : 213-380-0085  
(이태근 기자)



미션크리스천대학교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베풀었다

미션크리스천대학교 최초로 목사안수 베풀어

2010봄학기 종강예배 드리며 안수식 거행해

미션크리스천대학교(MCU,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윤요한 박사)가 최초로 목사안수를 베풀었다.

미션크리스천대학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주인공은 현근석 목사이다. 현 목사는 미션크리스천대학교의 1회 졸업생으로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으며, 빅토빌 새생명장로교회의 전도사를 역임했다. 현 근석 목사는 “뒤늦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꼭 필요한 종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이사야 66:1~2)’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윤요한 총장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지도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과 늘 자기 죄를 자복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현근석 목사는 최연소로 장로가 되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며 “이제는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써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핍박도 감당하는 종이 되라”고 권면했다.

\*현근석 목사 약력  
한국항공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M.Div.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시무장로 역임/ 빅토빌 새생명 장로교회 전도사 역임/ 현, 빅토빌 새벽별장로교회 부목사 (박삼미 기자)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직영 신학대학

2010년 여름계절학기

< B.A. 과정 >		
동양철학개론	주간	06/14~06/18
(이민)사회학과 이민 공동체	야간	06/21~07/02
기독교 예배	주간	06/28~07/02
목회사역(영어 강의)	주간	07/19~07/23
자연과학개론	야간	08/02~08/13
< M. Div. 과정 >		
성령신학과 은사	주간	06/07~06/11
기독교 교육	야간	06/07~06/18
(요한)계시록	주간	06/21~06/25
상당과 자기성품 이해	주간	06/28~07/02
조직신학 II	주간	07/05~07/09
교차 문화적 교회개척	주간	07/12~07/16
성서, 여성, 여성신학	주간	07/19~07/23
교회와 선교	주간	07/26~07/30
멘토링과 은사개발	야간	08/02~08/13
신약신학	주간	08/09~08/13

■ 주간 : 오전 9시~오후 5시  
■ 야간 : 저녁 7시 30분~11시

2010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학제**
- 학사(BA): 128학점 - 교역학석사(M.Div): 98학점
  -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98학점 = 30학점(교회음악) + 68학점(일반신학과목) - ESL(Level Test 실시)
- 접수 및 개강일**
- 접수마감일 : 2010. 8. 13 (금)
  - 개강일 : 2010. 8. 30 (월)
- 구비서류**
-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재정보증서(이상 본교양식 웹에서 다운 가능) 최근 명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각 1통)
- 특전 및 장학금**
1. 본교 졸업생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예장 통합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예장 통합 목사로서 이명이 가능함.
  3.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음.  
(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학생, 근로, 동문화, 산돌회, 여선교회, 지교회, 지정 장학금 등)
  4.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5. 15세와 2세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신학수업 개설.

목사(후보자) 교단 특별교육

교육일정: 2010년 6월 7일(월)~18일(금)

과목	기간	시간
한국교회사	7월~10월	7월 1:30~4:00
		8월 9:00~4:00
		9월 9:00~4:00
		10월 9:00~12:00
교회헌법 및 정치	10월~15일	10월 1:00~4:00
		11월 9:00~4:00
		14일 9:00~4:00
		15일 9:00~12:00
장로교 신조학	15일~18일	15일 1:00~4:00
		16일 9:00~4:00
		17일 9:00~4:00
		18일 9:00~12:00

- 장소: 본교
- 구비서류: 입학원서, 노회장 추천서, 명함판 사진 2매,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목사안수증서 복사본
- 공지사항: (1) 15세와 2세들을 위해 통역 제공. (2) 한국교회사 과목을 이미 수강한 이는 성적표 제출로 대체. (3) 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는 장로교 신조학 면제.
- 수업료: 전월료 \$100, 과목당 \$400.

# 28주년 은혜한인교회 '7천교회' 개척 비전 견고히



은혜한인교회 제공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16일 기념예배를 드리고 아울러 임직식을 거행했다. 한기홍 목사는 "28년 전 세 가

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5천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며 "전 세계 57개국에 26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6천 교회가 넘는 교회

를 개척하는 등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해주셨다"고 밝혔다. 또한 "28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며 "전 세계 7천

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지도센터 사역을 통해 1만 2천명의 중보기도자들을 세워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택진 목사(서울 명문교회)는 "말씀의 창조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헌신하여 축복받는 교회와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은혜한인교회는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이택진 목사를 강사로 지난 14일~16일까지 특별부흥대성회를 개최했다.

(박상미 기자)

# “LA 한인 커뮤니티, 센서스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센서스 요원이 가정으로 방문할 시, 반드시 공인된 센서스 배지와 가방을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센서스는 한인 커뮤니티와 개인의 피해를 주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1명이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4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실되며, 연방 하원의원 수도 줄어드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앞으로 10년간의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해주세요” - 줄리 램 디렉터

2010년 센서스 인구조사 미 전역 참여율 72%에 비해,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한 LA 한인타운에는 58%로 현저히 참여율이 낮은 상태다. 이에 연방 센서스국과 아태법률센터(APALC), 한인타운청소소년회관(KYCC), 민족학교(KRC) 등 13개 단체 관계자들이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서스국 하와이, 캘리포니아 지역 디렉터 줄리 램(Julie Lam)은 “현재 LA 한인타운의 센서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구조사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램 디렉터는 한인타운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센서스에 대한 홍보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센서스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센서스 요원은 소셜 시큐어리티 넘버, 운전면허증 번호, बैंक 어카운트 등 어떠한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램 디렉터는 “공인된 센서스 요원임을 증명하는 센서스 배지와 가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센서스 요원으로 방문 장면 시연을 해 보인 LA 지역 한인담당 제니 주 홍보관은 “한인타운의 센서스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리더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센서스 홍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족학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내 한인타운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가운데, 웨스턴 인근 지역의 각 마켓과 가구를 방문해 인구조사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이 삭감되는 것 뿐 아니라 한인 권익이 약화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센서스 참여를 호소했다. (지재일 기자)

#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따뜻한 '찬양의 밤'

깊어가는 주말 저녁 한국 교회를 위한 따뜻한 찬양의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LA 장로중창단(지도 윤임상 교수, 단장 정진식 장로)는 지난 15일 나사렛제일교회에서 한국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찬양의 밤'을 개최했다. 남가주 각 지역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이번 찬양의 밤은 찬양과 경배, 고백과 회개,

간구와 소원, 감사와 찬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총 12곡의 성가를 불렀다. 정진식 장로는 “주님과 동행했던 순간의 기쁨, 소망, 감격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장로님들의 신앙고백이 찬양에 담겨 있다”며 “한국의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빛도 없이 사역하는 교역자님들께 작은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LA 장로중창단은 한국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찬양의 밤'을 개최했다.

# SWIM선교회 정수기 제작 상반기 훈련 실시

## 공중위생 보건 훈련, 정수기 제작, 야외 화장실 짓기 등

미전도 종족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SWIM선교회(임영호 장로)가 상반기 훈련을 5월 27~29일까지 개최한다. 훈련은 공중위생 보건 훈련 6명, 정수기 제작 6명, 야외 화장실 짓기 3명에 한한다. 공중위생 보건 훈련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비위생적 습관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변화된 현지인들이 또 다른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정수기 제작은 수질이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

이나 그 사람들을 돕는 자, 식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제 3 세계의 어린이들이나 여인들을 돕는 책임자, 제 3 세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자기 지역의 식수 처리법을 배우기 원하는 자, 정수기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다. 야외화장실 짓기는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화장실을 현지의 사정과 경제적인 조건에 맞게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물의 오염을 막고 질병의 감염률을 낮추고자 하는 훈련으로, 낙후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나 단기 선교팀, 낙후된 지역의 화장실이 필요한 현지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다. 문의 (714) 403-2121 (박상미 기자)

# 엘림연합교회 창립6주년 감사 찬양콘서트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이한 라스베가스 엘림연합교회(담임 박상철 목사)가 23일 오후 2시 본 교회 예배당에서 월드비전 홍보대사 노형건 전도사를 초청해 찬양콘서트를 개최한다. 엘림연합교회는 창립기념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굶주림과 가난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세상에 알리고, 공연을 통해 그들을 결연시킴으로써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박상철 목사는 “하나

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선교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찬양콘서트로 라스베가스에 예배와 찬양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엘림연합교회는 이 밖에도

멕시코 엔세나다에 원주민 학교 설립과 후원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 얻어진 수익금을 현지 선교사에게 전달하는 등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 초청된 노형건 전도사는 지난 2006년 미주 한인사회 최초로 '월드비전US 코리아 데스크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 (박상미 기자)

#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장 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 목회자와 사모, 교회 위한 '하베스트 세미나'

## LA사랑의교회, 영적재충전과 일꾼이 필요한 교회 위해 개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이민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야심찬 일을 계획했다.

교회가 계획한 것은 열악한 목회 현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자와 동일한 짐을 지고 사는 사모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교회를 위한 세미나다.

풍성한 결실이라는 뜻인 '하베스트(Harvest)'를 따서 붙여진 이번 '하베스트 세미나'는

회하다 지친 목회자와 사모의 영적재충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영적재충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소명을 재조명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 강사로는 엘리야 스톨의 김종필 목사, 김은주 사모 그리고 김기섭 목사가 나선다. 김종필 목사와 사모는 지친 목회자와 사모들의 영적재충전을 위해 나서며 김기섭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

적 관점에서 조망해 줄 것이다. 사실 진짜 재충전이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모들이며 사모들에게 사모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김은주 사모가 강사로 나서게 됐다"며 강사 선정 동기를 설명했다.

김기섭 목사는 건강한 미국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개혁한 후 성공한 사례를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전한다.

김 목사는 "교회가 성장에 앞서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전제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실제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세미나와 훈련을 위한 세미나가 많지만 참여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결실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결실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선 건강한 미국 교회를 연구한 결과와 그 연구 결과를 교회에 개혁하며 적용될 성공한 사례를 전한다. 이 시간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쫓아 목회자들이 깨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등록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며 등록은 1차 등록 5월 31일까지 2차 등록 6월 30일까지 3차 등록 7월 31일까지며 1차 등록기간 등록시 참가비는 목회자 275불 사모 200불 부부가 함께 참여할 경우 425불이다. 2차 등록기간에 등록시 참가비는 목회자 300불 사모 225불 부부 함께 참여시 475불이다. 3차 등록기간에 등록시 참가비는 목회자 325불 사모 250불 부부가 함께 참여할 경우 525불이다.

등록비에는 3박 4일 호텔 숙박료와 간식비, 세미나 교재비 등이 포함됐다.

문의 : LA사랑의교회 213-386-2233, LAAsarang@gmail.com

(이태근 기자)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목사는 영적재충전이 필요한 목회자와 사모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베스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태근 기자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며, 김기섭 목사가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후 23년 만에 처음 열리게 됐다.

김 목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중 이미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셨고 그 일꾼이 먼저 와서 일하는 목회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목회자들이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선 열악한 환경에서 목

한 방법을 전하기 위해 강사로 나선다.

김기섭 목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목회자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필요하다. 터닝 포인트와 영적재충전을 위해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룬 김종필 목사님이 강사로 나선다. 김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김은주 사모는 사모의 역할을 사역

##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 <총재 장병철 목사>

# 태권도, 합기도 등 무술로 세계 복음화 앞당긴다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총재 장병철 목사)은 지난 5월 초, 유카이파에서 LA 오픈 미션 태권도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이날에는 선교연맹 관계자 및 학부모, 선수를 포함, 약1천여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서는 선수들이 합기도 및 검도시범을 보였으며 지미옥 무용연구소 원장과 단원들이 특별히 참가해 세계 무술 단원들을 위한 민속 탈춤과 부채춤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왼쪽부터)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 미국 대표 이철민 목사, 로스앤젤레스교역자협의회 회장 표세홍 목사,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 총재 장병철 목사.

장병철 목사는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은 세계 무술인의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30년 전 한국에서 태권도 백마선교단이라는 태권도 시범 단체로 출발했다"며 "세계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등 각 나라에서 유명한 무술 종목 선수들과 지도자급 무술 사범, 관장을 복음화로 무장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을 사랑하셔서 태권도 종주국으로 만드셨는데, 태권도를 통해서 각 나라 무술인들의 연합을 이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세계 10억 무술인들의 복음화가 속히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장병철 목사는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무술선교대회를 준비 중이다. 선교대회에는 세계 200개국 무술인들이 모여 태권도 기술 세미나 및 참가자들을 위한 부흥집

회도 함께 마련된다. 장 목사는 "전 세계 10억에 가까운 무술인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매개체로서 특히 한국인에게 축복하신 태권도를 통한 체육 선교에 대해 목회자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로스앤젤레스교역자협의회(회장 표세홍 목사) 체육분과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병철 목사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 공립 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가 폐지됐는데, 복음으로 무장된 한 명의 태권도 사범이 세워지면 매일 수많은 제자들에게 매일 태권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마련돼 효과적인 청소년, 청년들 복음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교역자협의회에서 무술 선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의 선교 사역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표세홍 목사는 "선

교지에 한 교회를 세우려면 법적, 재정적 제약이 많지만 태권도 도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쉽게 세워질 수 있고 태권도 도장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도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선교지에 교회뿐 아니라 태권도 도장이 세워져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 나갈 때 선교지 복음화를 위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병철 목사는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내 크리스천 태권도 관장이 이끄는 검도, 태권도, 합기도 등 무술 수업 및 부흥집회 형식의 무술 선교 세미나를 인도할 것이다"며 "지역교회와 선교연맹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무술사범선교연맹 213-321-2765

(지재일 기자)

## "자연과 더불어 예배합니다" 시온성중양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드려



시온성중양교회는 16일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렸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교회마다 야외예배를 계획하고 자연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온성중양교회(담임 박상규)는 지난 16일 세리토스 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고 각종 야외활동을 통

해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 박상규 목사는 "야외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성전 삼아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교회행사"라며 "야외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연(自然)이 참된 자연이 되려면 천연(天然)이 되어야 한다"며 "천연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며 이 성령에 이끌려 천연스러운 얼굴, 천연스러운 웃음, 천연스러운 기쁨, 천연스러운 인격, 천연스러운 봉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폴리)**  
**213-248-9297**

## 365일 매일 3회 집회가 있는 L.A 대한민국 기도원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 새벽 5시 30분 /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장소 : 2716 Ellendale Pl., LA, 90007  
\* 차량픽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323-734-4599 / 213-725-3007**

\* 각 분야 봉사자 및 악기 연주자, 사명자들은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실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합니다)

■ 시카고한인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결과

# “40일만에 출석 10% 증가” 보다 더 큰 성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내가 먼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전병관 집사(목사) “우리의 잘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과 작은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경희 집사(목원)

“작년 11월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에 희미함은 있었지만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으며 성경 말씀은 글자일 뿐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미성도(목원)

시카고한인교회에 40일만에 무슨 일이 터지긴 터졌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40일동안 주일예배 출석인원이 10% 증가해 594명을 돌파했고 매일 새벽기도회 참석률은 91%나 급상승하며 260명으로 집계됐다. ‘40일’이란 표현 자체에서 이미 눈치챈만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이뤄졌다. 21세기를 갖 맞이한 한인교회에서 선포적, 아니, 폭발적 인기를 끌며 미주 한인교회라면 안 해 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히트를 쳤던 그 캠페인이다. 이전 유행

이 다 지나버린 프로그램으로 여겨질 법 한데, 뜬금없이 2010년 초에 서장권 담임목사가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됐다”고 나왔다. 이 캠페인이 전세계적으로 얻은 인기로 인해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형편이었다.

최근 캠페인을 마친 서장권 목사는 “캠페인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제대로’ 캠페인을 했다”고 말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가 컸다. 40일동안 매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됐고 서 목사가 매일 설교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목적이 이끄는 40일 책을 강독하고 밀줄 그어가며 외우다시피 했다. 그렇게 되니 전 성도들이 매일 공통적인 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게 됐다. 소그룹 모임에 모이면 또 다시 그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주일예배 때, 서 목사가 다시 한번 일주일간 캠페인의 주제를 놓고 설교했다. 이 기간동안 새벽기도회에는 매일 전체 성도의 절반이 나왔고 못 나오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설교를 다운로드 받아 들었다. 이 기간동안 새벽 설교 다운로드 횟수는 1126번이었다. 40일간의 새벽기도회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훈련된 43명의 목자들이 소그룹을 총 630시간동안 인도했다. 한 목장에서 한번 모일 때 평



시카고한인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하며 드린 개회예배.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가 이어져 40일이 지난 오늘 그 성과는 놀라웠다.

균 2시간 반동안 활동이 이뤄진 셈이다. 캠페인이 강조하는 개회예배, 사역박람회, 선교박람회, 축제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40일을 왔다.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다 할만큼 정확하게 캠페인이 강조하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왔다고 한다.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가 결과를 말해 주는 것 같다”고 문자 서 목사는 “사실 수치 성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결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하나된 것이다. 서 목사는 “이 캠페인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며 그

리 될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믿음이다. 주객이 바뀌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시카고한인교회 측은 이번 캠페인에 모든 성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기존의 27개 목장을 43개로 확대했다. 한어청년권, EM, 중고등부까지 모두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새벽기도회나 주일예배 출석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온 성도들이 하나되는 그 뜨거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한국어어를 사용하는 부모와 영어를 사용하는 자녀도 집에서 마주치면 캠페인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캠페인은 40일간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서 목사는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는 것에 무슨 구식이 있고 유행이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구식이라 할 수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 질문이 바로 이것이며 전세계에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은 4천만 명이 팔리고 1만 교회가 도입한만큼 검증된 캠페인이기도 하단 뜻이다. 시카고한인교회는 금년의 표어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로 정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신 뜻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을 찾아 보자고 서 목사가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성도들의 반

응도 뜨거울 수 밖에 없었다.

시카고한인교회가 교회에 캠페인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몇 년이 지나자 목장이 침체되는 것을 보고 목장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다 서 목사는 오랜 고민 끝에 40일 캠페인을 택했다. 목장이 살아나고 모든 목장들이 교회에 가진 하나의 목적 아래 수렴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라 봤기 때문이다. 이번 기간동안 2-3주에 한번씩 모이던 목장이 매주 모이게 됐다. 자주 모이니 목원들 간에 관계가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전에는 교제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 관심을 갖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가족이 가족을 염려하는 것처럼 서로를 알고 사랑하게 됐다. 서 목사는 “교제의 수준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성도 개개인에게 느껴진 감동도 적지 않다. 캠페인을 마치고 별인 설문조사에서 88%의 성도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시카고한인교회가 이번 캠페인을 마치고 제작한 책자 “40일의 만남”에는 성도들의 뜨거운 간증이 기록돼 있다.

(김준형 기자)



## 교회가 가진 사회적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가진 사회적 사명은 무엇일까? 본 회퍼의 표현을 빌리면, 미치광이 운전 기사가 버스를 몰고 가는 것을 볼 때,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르고 유족을

회 신학과 신앙 세미나-교회의 사회적 사명'에서 프린스턴신학교 이상현 교수는 “교회는 아모스 5장에 나온 것처럼 정의의 물갈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는, 한인으로서 이민신학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민신학 연구에 본격적 문을 열기도 했다. 그는 현재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석좌교수로 있다.

## 정의를 물갈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위로하는 일일까? 아니면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빼앗아 생명을 구하는 일일까?

미드웨스트교회(담임 정영건 목사) 창립 38주년, 한국기독교 연구소(소장 서보명 교수, CSKC) 창립 3주년을 기념하는 “한인교

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72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얻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연구 외에

그는 “대체로 한인교회들은 사회 정의 실현과 사회 참여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미주의 한인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그 사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라

면,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물질 세계의 것을 저급한 것, 허상으로 보며, 영혼 세계의 것을 고상한 것, 실제로 보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이 생겨거스틴에 의해 수용되면서 교회도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현실세계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됐기 때문이다. 교회도 신앙의 관심을 개인에게 두면서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됐고 이는 자연히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신앙과는 무관한 신앙으로 발전해 갔다.

이 교수는 “물론 하나님은 개인과도 관계를 맺지만 구약에서는 공동체를 상대로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개인주의적 신앙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런 신학적 근거가 아니라도 모든 인간은 공동체에 속한 사회적 동물이기에 믿는 사람의 신앙과 삶은 당연히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삶이 개인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교회의 사역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뤄지는 이유는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몇가지 성경적 근거 때문이다. 마23:38-42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리고자 하면 겹옷도 주고, 5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는 이 구절을 악에 대응하지 말고 자기 인권도 주장하지 말고 참으라는 구절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춘계 말씀집회

#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정현 목사**  
-총신대학원 졸업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남가주 총신동창회장 역임  
-현 남가주 목사회 회장  
-현 빛과 소금교회 담임

**일시 5월 21일(금) -23일(주일)**

금 / 7:30pm  
토 / 6:00am, 7:30 pm  
주일 / 8:00am, 11:00 am

**장소 빛과 소금교회**  
**강사 이정현 목사**

**빛과 소금교회**  
Light and Salt Presby. Church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 326-0300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 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5월 24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회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 해외합동총회 총회장에 한영근 목사 선출

## 제32차 총회 성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선교하는 총회 만들 것"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새순 장로교회(담임 박성은 목사)에서 진행된 제32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합동총회 총회장에 한영근 목사(캘리포니아노회)가 선출됐다.

총 18개 노회 중 10개 노회 40여명이 참석한 총회는 개회예배와 성찬 예식에 이어 임원진을 선출했다. 선출된 임원은 총회장 한영근 목사, 부총회장 육승호 목사(미주 노회), 임주장장로(필라델피아 노회), 서기 이세호 목사(미주노회), 부서기 기경순 목사(워싱턴 노회), 회의록 서기 송인 목사(동남부 노회), 회의록 부서

기 조영길 목사, 회계 김광래 장로(태평양 노회), 부회계 양승관 장로(동남부 노회), 상임총무 조도식 목사(필라델피아 노회), 협동총무 정석천 목사(태국 노회) 등이다. 회무처리 시간에는 미주 총회와의 총회 통합 추진 건, 오렌지카운티 소재 스텐튼 대학과 대구신학교의 총회인준 허락 건, 목회자 가입 건이 진행됐다. 총회는 거의 성사 단계에 있던 통합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보고 받고 전권위원회를 위임해 계속해서 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학 인준 건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좀 더 자세하고



김동욱 직전 총회장(왼쪽)과 한영근 신임 총회장(오른쪽)이 임원 교체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의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실시한 후 인준하는 것

으로 결정됐다. 목회자 가입 건 역시 이력서와 증명서 등의 자세

한 내용을 첨부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결

정됐다. 총회는 이어 '총회 육성 발전을 위한 특별 성회'를 개최하고 총회와 대회, 노회, 총대원 교회 발전, 선교사, 북한 선교 활동 등을 위해 기도했다.

한영근 총회장은 "본국 총신 출신으로 보수 전통 신앙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인 해외합동 총회는 디아스포라를 흠여져있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네트워크해 선교하는 총회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1년에 개최될 총회는 워싱턴 DC 혹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앤더슨 기자)

# 청년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라

## 워싱턴기독교청년연합회 '2010 캠퍼스 워십' 개최



연합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워싱턴지역기독교청년연합회(회장 이홍주, 이하 워청)가 5월 14일(금) 저녁 7시 애난데일 소재 노바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010 캠퍼스 워십'을 드렸다.

'부르심'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캠퍼스 워십은 연합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사랑의교회 청소년 국악팀의 특별연주, 주병열 목사의 말씀, 기도, 김성곤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초청된 주병열 목사(살롯츠빌한인교회 담임)는 '불행했던 요시아'(역대하 34: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 목사는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아는 아버지가 믿던 신화가 아버지를 죽인 것

을 목격하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다.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며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자기 사명을 찾았다. 20살 때는 이상들을 적절히 시작했으며 나라를 정결케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됐다"면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통해 성장해 갈 것"을 축원했다.

말씀 이후에는 워청을 위해, 워청과 협력하고 있는 CG선교회, YWAM, KBS, 기독교문사 등을 위해 각각 합심으로 기도했다. 기도 시간에는 41일동안 미국의 주요도시를 돌면서 미국을 중보하고 하

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8명의 '비전 2010'팀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워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페어팩스구세군에서 중보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5월 연합예배도 30일(주일) 오후 6시 페어팩스구세군(4915 Ox Road, Fairfax, VA 22030)에서 드릴 예정이다. 2010 워청 여름 연합수련회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Summit Lake Retreat Center에서 진행된다.

캠퍼스워십에는 워싱턴교협 임원진들을 비롯해 정세권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 이은애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회장, 황원균 북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등도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김성도 목사(워싱턴교협 회장)는 "워청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니 기쁘고, 앞으로도 수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워청 문의 : 571-214-2889(회장 이홍주)

(조요한 기자)

# 김성곤 목사, "두날개양육시스템 좋은 열매 많았다"

두날개양육시스템 미국 제2기 집중훈련 6단계 재생산훈련 강의를 위해 미국에 온 김성곤 목사는 13일 오후 뉴욕신광교회 내 강사실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김성곤 목사는 "문화와 토양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임상해본 결과가 이 두날개양육시스템대로 했을

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며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두날개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날개양육시스템 제2기 미국 집중훈련이 23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14일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막을 내렸다. 이날 수료자 대표로 라흥재 목사

를 증명했다.

또한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김인식 목사가 서부 지역 고문 위원회를 맡았으며 김용재 선교사(도미니카공화국)·장영호 선교사(아르헨티나)가 지역장 임명패를 받았다.

한편 두날개양육시스템 제2기 미국집중훈련 6단계 재생산훈련 둘째 날인 12일 김성곤 목사는 '재생산의 삶' 교재를 풀어나갔다. 이 교재는 앞으로 재생산의 삶을 살아갈 셀리더가 배울 교재다.

교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목표와 비전과 가치관', '셀리더의 조건', '열린 모임의 성공 전략', '셀 리더를 향한 주님의 요청' 등으로 이어진다. 김성곤 목사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키우며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며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날개양육시스템 제3기 미국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은 내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LA에서 열린다. (www.twmc.or.kr)

(오상아 기자)

# 2011년 제3기 미국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은 LA에서 개최

때 좋은 열매가 많았다"며 "가능한 한 이 시스템대로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목사는 "미 남부·동부·서부의 사례를 보며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해야 할 숙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체계의 교회 안에 두날개양육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일어나는 마찰에 대해서 김성곤 목사는 "전통적 교회가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적용하는 것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변화를 원하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가 수료증을 받았다.

한편 두날개양육시스템 USA 준비위원회를 대표해 정도영 목사가 김성곤 목사에게 꽃바구니



김성곤 목사(두날개선교센터 대표)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 L.A. AUTO 정비

24hr

##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후원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훈근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중동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1부거리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환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더너우 4기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후 1: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섬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임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송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성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민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한인어린이회**  
 회장: 테레사 임 목사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주 연방정부 IRS  
 T. (213) 380-1112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Coffee Break Small Groups**  
 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8208 Pa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 (714) 995-4461 / F. (714) 974-3017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기도) 오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선교 주도국과 대상국 사라진 21C, 필수 요소는?

동서양의 선교학자 및 선교 지도자들이 미완성 선교과업 성취를 위해 협력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 연구와 지도자 개발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제1세계 서구교회와 제2,3세계 비서구교회를 대표하는 선교학자 및 선교 지도자 60여명은 최근 한 사랑교회에서 개최된 2010 동서선교포럼에서 협력선교 시대를 맞아 각 대륙별 선교운동과 리더십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조동진선교학연구소(DCM)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사역의 활

협의회(COMIBAM) 회장 데시오드 카발호(Decio de Carvalho) 박사, 동서선교연구개발원 공동대표인 폴 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박기호 교수는 각각 신흥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교회의 선교운동을 소개했다.

폴 피어슨 박사는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과거 복음 때문에 희생당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처럼 생명을 바치려는 헌신의 자세로 선교적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어느 나라, 지역이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피어슨 박사는 "

으나 당시 서구교회에서 '폐선교국'에서 무슨 협력을 이야기 하느냐며 거절해 결국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제 제3세계 교회의 권위가 높아졌으니 새로운 선교 환경에서 어떻게 협력선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호 교수도 "과거에는 영국 등 유럽 주도로 선교가 일방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지금은 오대양 육대주에서 선교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 이상 선교 주도국과 선교 대상국을 구분해 일방적으로 흐르는 선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대륙이



앞줄 오른쪽부터 폴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전 원장 폴 피어슨 박사, 폴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박기호 교수, 제삼세계 선교협의회 설립자 조동진 박사, USCWM 사무총장 데이브 데이트마 박사, 폴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제후 헨슬스 교수, 뒷줄 오른쪽부터 중남미선교협의회 회장 데시오드 카발호 박사, 아프리카선교협의회 대표 셋 아노미 박사, 아시아선교학회 회장 데이빗 하르토노 박사, 동서선교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조용중 박사, 아시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이은무 박사. ©이지희 기자

동대표 조용중 박사는 비서구교회의 선교 연구와 지도자 개발, 아시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이은무 박사는 조동진 박사의 선교 여정을 각각 소개했다. 또 아시아선교학회(ASM) 회장 데이빗 하르토노(David Hartono) 박사가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한 뒤 참석자들은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가 어떻게 협력 선교를 할 것인지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가졌다. 포럼 마지막 참석자들은 조동진 박사의 50년 사역의 역사 자료와 문헌을 보존한 조동진 선교기념관을 방문해 제3세계 선교 운동을 한 눈에 보는 시간을 가지고 양화진 방문, 고궁문화 체험 등을 하며 교제를 나누고 결속을 다졌다.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이며 조동진 박사의 딸인 조은옥 박사는 이번 포럼에 대해 "동서 구분 없이 전 대륙의 교회가 효과적인 선

교 사역을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동진 박사 등 1세대 주요 선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은퇴하고 세계 선교계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2-3세대 젊은 선교 지도자들이 이번 행사에 많이 참석했다고 밝히며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 간 네트워크뿐 아니라 1-3세대 선교 지도자들을 아우르는 폭넓은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도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은 1973년 아시아 14개국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범아시아선교지도자컨설팅' 결의에 따라 선교 연구와 아시아 선교사 훈련을 목적으로 같은 해 조동진 박사에 의해 설립됐다. 조동진 박사가 원장으로 있던 1973년부터 1999년까지 25년간 총 2천명 이상의 아시아 선교사 후보생과 목회

자들을 현장 선교사 및 석박사 과정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선교학자로 육성해 아시아 교회가 서구교회의 미완성 선교과업을 성취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1999년 조동진 박사가 은퇴한 후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활동이 다소 정체되었다가, 2004년 초기 졸업생들이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재활성화준비위원회'(위원장 박기호 박사)를 구성하고 작년 미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법인 등기를 마치는 등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준비하여 이번에 첫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70-80년대에 주로 아시아 선교 발전에 집중해 온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 지금의 세계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 세계 선교 지도자들, 연구 및 지도자 개발 논의

성화와 조동진선교기념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비서구교회의 선교운동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폴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제후 헨슬스(Jehu J. Hanciles) 교수의 세계 교회와 선교 동향에 대한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폴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전 원장 폴 피어슨(Paul Pierson) 박사, 제삼세계선교협의회 설립자 조동진 박사가 각각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의 선교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또 아프리카선교협의회 대표 셋 아노미(Seth Anyomi) 박사, 중남미선교

과거 서구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일방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교지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가 각각 다른 선교 자원을 가지고 협력선교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동진 박사는 70년대 초부터 협력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제적인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

다방면에서 협력하는 동반자 사역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가 선교 연구와 지도자 개발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소천한 알프 윈터 박사가 후계자로 지목한 미국세계선교센터(USCWM) 사무총장 데이브 데이트마 박사는 이번에 서구교회의 선교 연구와 지도자 개발에 대해 USCWM과 윌리엄 캐리국제대학교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동서선교연구개발원 공

##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후임으로 진재혁 목사 내정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의 후임으로 미국 뉴비전교회 진재혁 목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촌교회는 16일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진재혁 목사를 후임자로 선출했다. 진 목사는 오는 12월 취임 예배를 갖고 2011년 1월부터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비전교회는 이에 대해 제직회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 방향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진재혁 목사는 미국 산호세 지역 뉴비전교회 담임목사이자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 초빙교수다. 총신대학교 초빙교수, 지구촌교회 국제사역 담당목사, 케냐 선교사, 나이로비 국제 신학교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나이로비 국제 선교교회 개척, 담임을 맡아 목회한 바 있다. 뉴비전교회는 진재혁 목사가 5년 전 부임한 이후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현재 2,300여명의 교인

이 출석하는, 북가주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이며,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침례교회로 성장하게 됐다. 진재혁 목사는 기독교적인 측

면에서 리더십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선교 리더십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아 한국에 있는 신학대, 학회 등에서 외부초청강사로 활동해온 바 있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1.5세 목회자로, 이제까지 북가주에 열린 신학계 인사를 초청한 연합적인 규모의 컨퍼런스 등에서 영어로 또는 한국어로 동시통역해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저서로는 「리더가 죽어 야 리더십이 산다」(더난출판사 2002),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생명의 말씀사 2007)가 있다. 그는 미국 풀러 신학교 리더십 철학박사(Ph.

D), 미국 풀러 신학교 선교학 석사(Th. M.),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목회학 석사(M. Div)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심리학(B.A.)을 전공했다.

한편 이동원 목사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퇴 문제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당시 "보통 목사님들이 70세에 은퇴하시는데 제가 65세에 하는 이유는 조금 일찍 은퇴해 후임자와 일정 기간 동역하면서 교회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제가 담임목사직을 내려놓더라도 교회 내부 인물이면 1년간, 외부 인물이면 3년간

동역해 점진적으로 교회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바톤 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은퇴 후에는 한국교회를 폭넓게 섬기고 싶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목사는 "저는 은퇴를 일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며 "한국교회를 폭넓게 섬기면서 특별히 리더십 훈련, 평신도 리더십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퇴하면서 공식 직함을 많이 내려놓으려 한다"며 "저는 (은퇴 준비를) 역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임형진 기자)

#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35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 꿈이있는교회, 교계 최초 영화제작 전면에서 나서다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을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겠기에 거듭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영화실교로 잘 알려진 하정완 목사가 담입하는 ‘꿈이있는교회’가 최근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영화 제작에 나서 오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제작한 영화의 제목은 <버스>(BUS). 꿈이있는교회서 설립한 영화사 ‘아이즈필름’(Eyes Film)이 1년여 동안 기획 촬영해 최근 편집을 마친 첫 영화다. 대학로 풀빛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교회가 제작한 영화를 특정 종교 시설이나 영화제 등의 특별

한 기간이 아닌 일반 극장에서 순수 일반인들을 관람 대상으로 선보이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영화 <버스>는 스위스에서 실제 벌어졌던 실화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전체를 재해석하여 각색한 작품으로, 아들

생일에 몸이 아픈 동료를 대신해 버스 운전이 나섰던 아버지가 운전 중이던 버스의 브레이크 파열로 차를 멈출 수 없게 되자, 본인이 생일 선물로 사 준 자전거를 타며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회생하여 고장난 버스를 멈춰 세움으로써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을 구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총 제작을 맡은 하정완 목사는 데칼로그 시리즈 첫 작품인 <버스>를 시작으로 십계명의 한 계명당 영화 한 편씩, 총 10편의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스어인 ‘데칼로그’(Decalog)는 성경의 십계라는

뜻. 첫 영화 <버스>의 부제는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장 13절)이다. 제작진 측은 교회가 만든 데다 “살인하지 말라”는 부제까지 달렸지만, ‘예수전당 불신지옥’식의 대사, 또는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의도되거나 함축된 메시지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가 제 갈 길을 재촉하는 사람 등 우리 주위에서 늘 만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영화 <버스>는 기독교적 시각이 아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버스 기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지른 ‘살인(殺人)’을 상식적,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려냈다. 모든 승객을 살리기 위해

교회, 십자가, 목사나 전도사도 등장하지 않는다. 고즈넉한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버스 기사, 아버지와 아들, 술에 취한 대학생들, 여자 문제를 고민하는 친구, 사고 현장을 목격하다 비가 온다며 피하는 사람들, 차를 세우고 구경하

자기 아들을 죽여 버스를 멈춰야 했던 한 아버지의 살인 행위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보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어떠한 강요나 기독교 또는 비기독교를 구분하는 장치도 없다. 영화는 총 제작을 담입한 하정완 목사가 맡고 감독(연출)부터 엑스트라까지 이 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작업에 참여한 대부분은 중무로와 대학로에서 활약 중인 현역 프로들이다. 영화, 연극, 음악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교인들이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자진하여 참여했다. 영화 제작 비용 역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이 대부분인 꿈이있는교회 교인들의 십시일반 자발적인 재정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하목사는 이러한 노력 또한 교회가 세상 문화와 타협하거나 세속화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일부 부정적·비판적 의견에 대해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며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기독교계의 문화 선교, 특히 청년 선교 방향에 대해 교계나 개교회들의 NATO(No Action, Talk Only), 즉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무성히 보다 무엇이든, 어떠한 노력이든 좋으니 일단 진심과 최선을 다해 시도하는 것이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 오는 20일 첫 영화 <버스> 개봉 앞뒤



총회장 이영훈 목사(왼쪽)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 ‘기하성의 하나됨을 위해’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17~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요 4:18-19)를 주제로 제59차 총회를 개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본 교단의 순수한 복음은

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국내외 교회를 받아들여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쓴다”며 “성령운동과 교회 부흥, 성숙의 결실을 맺는 교단으로 나아가길”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류재광 기자>

## 목회자 91.4% “하나되는 기쁨”은 反성경적 이단 서적

성경을 노골적인 부부 성생활의 지침서로 해석하여 기독교계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서적 ‘하나되는 기쁨’에 대해 목회자 및 교역자 대다수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개혁연대(이하 교개연)는 4월 한 달간 전국에 있는 목회자 및 교역자 등 400명

성을 주장한 저자 및 추천인들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서적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聖經)은 성경(性經)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2.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동의하지 않음 82.9%, 모르겠다 17.1%, 동의함 0%), 또 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성

독인의 영성을 방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81.4%가 “방해한다”, 18.6%가 “모르겠다”고 답해 조사자 중 단 한 명도 이 책이 기독교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책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저술되었다는 저자 및 추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75.7%가 “

다” 44.3%, “모르겠다” 44.3%) 단 순히 현재의 절판된 상황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며, 결국 관련자들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이 이러한 사상을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이 서적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44.3%가 답했다.

이에 대해 교개연의 공동대표인 박노원 목사는 “이 서적이 반기독교적 이단 사상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상이 앞으로 기독교계 내에서 수용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사는 2010년 4월 한 달간 우편, 그리고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내 목회자 70인이 응답하였다(응답률 17.5%).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1.7%다.

(류재광 기자)

## 설문 결과 “성경적” 응답은 0%... 80%가 “유해하다”

을 대상으로 ‘하나되는 기쁨’에 대해 기독교인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자 중 91.4%가 ‘하나되는 기쁨’이 반성경적 서적임에 동의한 반면, 성경적이라고 답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반성경적이다 91.4%, 모르겠다 8.6%, 성경적이다 0%), 관련자들의 사상과 활동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 본 서적의 성경적 정당

경 해석의 적절성을 묻는 5문항에 대해 “잘 설명되지 않았다”가 평균 72.9%, “잘 모르겠다”가 평균 27.1%인 반면, 단 한 명도 “잘 설명되었다”고 답하지 않아, 사실상 이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이 반성경적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책이 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80.0%가 “유해하다”, 20.0%가 “모르겠다”고 답했고, 또 이 책이 기

복음주의적이 아니다”라고 답했고(“모르겠다” 20.0%, “복음주의적이다” 4.3%), 이 책이 이단 서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4.3%가 “이단서적이다”라고(“모르겠다” 45.7%, “이단서적이 아니다” 10%) 답했다.

이 책이 절판된 후, 재출판의지를 밝혔다가 현재는 재출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저자 및 추천인의 말에 대해, “신뢰한다”가 11.4%에 불과해(“신뢰하지 않는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김승욱 칼럼



김승욱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이곳에 다시 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1,600여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에베소로 모여 들 것입니다. 3박 4일간 우린 한 마음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모슬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특

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잘 선포하고, 그곳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에베소에 모인 우리 교인 100명 외 각 지역에서 온 1,500명 중보기도자들을 위해 몇 가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서로 다른 배경에서 건너 온 우리는 다양한 영성과 기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울부짖는 기도, 서양인들의 조직적인 공동체기도, 또한 지중해 성도들의 깊은 묵상 기도도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배우려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함

터키 에베소에서 드리는 편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되게 하소서!

에베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터키의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이 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의 고향이 여기에 있고, 사도행전 역사의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한창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펴 나갈 때,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전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터키의 인구 7천 3백만 중 불과 4,000 명만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며 한 때 화창했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히 마지막 날인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에는 터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약 1,000명이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저녁 기도집회는 모인 중보기도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인데, 그 때는 자리를 에베소 대극장으로 옮겨 터키인, 서양인, 한국인 2,500여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터키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마지막 집회가 있을 것이니,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주일 아침 8시부터 12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곳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집회 때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

다. 말씀은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잘 선포하고, 그곳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에베소에 모인 우리 교인 100명 외 각 지역에서 온 1,500명 중보기도자들을 위해 몇 가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를 두고 기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터키와 모슬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며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왕의 대로를 건축하고 오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차게 들림을 받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에 영국해협을 왕복으로 해업처서 뉴스의 초점이 된 플로렌스 채드윅 (Florence Chadwick)이라는 여성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세가 되던 해인 1952년 7월4일 롱비치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롱비치 해변까지 해

역지에 도착해보니 안개 때문에 못 보았던 거리가 불과 육지에서 2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매우 교훈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

던 날 안개는 더 짙게 끼었습니다. 해변 전체를 안개가 덮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작고 건 속에서 플로렌스는 도전장을 내었고, 마침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

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스파이 중 여호수아와 갈렘은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최종의 목적지라는 신념을 갖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영적인 시선을 고정했던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가나안 땅에 임성합니다. 목표점을 향한 시선의 고정... 그것이 성취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목표점에 고정합시다"

엄쳐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도착 시간을 전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채드윅은 16시간이나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했지만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기권을 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권하고 배로

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목표 지점만 확실히 볼 수 있었더라면 어찌하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개가 장애물이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수영 횡단에 실패하고 꼭 두 달 후에 재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닷물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

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그녀는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무엇이 시선을 고정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괜찮은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나서 포기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순간적인 실패가 바꿀 수 없

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마음의 번잡함을 없애줍니다.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 이미 죽은 지 2일이 지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질문은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겠다고 하시

돌을 옮겨 놓아라!

는 결론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의 흔적과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야구의 신화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데이브 루스는 714번째의 홈런기록을 세웠을 때,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실패는 배우는 시간이고, 성장하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자 그의 무덤이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녀들을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나사로

면서 정작 돌을 옮기는 것은 왜 사람들에게 시키셨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비하면 돌 정도를 옮기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왜 굳이 사람에게 부탁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미미하지만 우리의 도움과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적을 만드시고,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돌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WWW.UKOPIA.COM

미국이 보인다!



- 유코피아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는 메인페이지
- 재밌는 뉴스, 정보 가득한 미국가이드, 튀는 칼럼
- 손쉽게 찾아보는 미 전역 한인업소 정보
- 알차고 독특한 미국 여행 정보
- 365일 계속되는 경품이벤트
- 미국 대표도시들의 길라잡이 시티가이드
- 할리웃 스타들의 세계를 소개하는 유코IN사이드
- 미국생활/관광의 할인 쿠폰이 "팡팡"





# 빠짐없이 집계하기 위해 인구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아직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친절한 인구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으로 커뮤니티가 교육환경 개선과 직업 훈련 증진 등에 쓰일 정부지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원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인구조사원은 공식적인 ID를 가지고 있으며 기밀유지를 서약하였습니다.
- 인구조사 참여는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인구조사원에게 협조해 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 교회마다 도시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제15차

# Jama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역대하 7:14

### 2010년 6월 29일(화) 4pm ~ 7월 2일(금) 10pm 은혜한인교회, Fullerton, CA



#### 강사 가나다 순

 <b>강일진 목사</b> 순복음 라스베가스교회 Las Vegas, NV	 <b>권 준 목사</b> 시애틀 형제교회 Bothell, WA	 <b>김수 목사</b> PROMISE MINISTRIES Flushing, NY	 <b>김준근 교수</b> JAMA 대표 Seaside, CA	 <b>박수웅 장로</b> JAMA Overseas Director Tustin, CA
 <b>위성교 목사</b> 뉴라이프교회 Fremont, CA	 <b>유진소 목사</b> LA 온누리교회 Lake View Terrace, CA	 <b>이성철 목사</b> 달라스중앙 연합감리교회 Dallas, TX	 <b>장동찬 목사</b> 뉴저지 베다니교회 Wayne, NJ	 <b>정인수 목사</b>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Duluth, GA
 <b>한기홍 목사</b> 은혜한인교회 Fullerton, CA	 <b>호성기 목사</b> 필라란디옥교회 Conshohocken, PA	 <b>강순영 목사</b> 예수사랑선교회 JAMA 부대표 Los Angeles, CA	 <b>Danny Han 목사</b> Joy Christian Fellowship Tenafly, NJ	 <b>Daniel Pak, M.D.</b> JAMA Ann Arbor, MI



#### Track 강사 금요일 오후 2시~6시까지 Track별 강의를 있습니다. (QT, 가정, 건강과 치유, 선교, 재정관리 Track)

 <b>김철민 장로</b> CMFM 대표 JAMA Family Director Fountain Valley, CA	 <b>김은애 권사</b> QT Life Mission 대표 JAMA QT Director Fullerton, CA	 <b>배성호 목사</b> TIFF Ministries 대표 JAMA JH&H Director Wilmington, DE
 <b>최순자 박사</b> MOM Ministry 대표 JAMA Missions Director Warrenville, IL	 <b>박종식 장로</b> US Crown Korea Director Laguna Niguel, CA	



**일시** 2010년 6월 29일(화) 4pm ~ 7월 2일(금) 1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714. 446. 6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같은 기간 중 저녁마다 2세들을 위한 집회가 따로 있습니다.

**참가대상** 1. 교회와 미국과 2세들과 이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훈련을 받고 중보기도자로 섬기고 싶은 성도  
 2. 교회에서 중보기도사역을 이끌거나 섬기고 싶은 목회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  
 3. 대회에 참가하여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  
 \* 대회등록인원은 선착순 1,000명으로 합니다.

**등록비** \$100 (교재, 식사비 포함) \*숙박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마감 2010년 6월 20일(월)

**숙소** 숙소를 원하시는 분은 JAMA 사무실로 연락해주시십시오.  
**Hotel: Anaheim Park Hotel:** \$69/night/room+Tax  
 222 West Houston Ave. Fullerton, CA 92832  
**민박:** \$20 (민박가정 선불비)

**안내** JAMA National Office  
 4201 Wilshire Blvd. Suite 411,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4055 / Fax. 323.933.4059  
 E-mail: prayer@jamaglobal.com

## www.jamaprayer.com



## 지금은 비상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미국 50개 모든 주의 중보기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와 함께 정치, 사회, 문화, 도덕, 예술, 교육, 가정에 걸쳐 역사상 전례없는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이 복합적 위기의 배경에는 1962년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중단시킨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을 추방, 이 나라에 만연한 동성애, 낙태, 불륜, 탐욕, 극단의 이기주의, 황금우상숭배등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죄에 대한 경고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청교도로 시작된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기독교의 보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국,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면 미국은 주님의 지상명령성취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신약적으로 타락한 미국을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살리기 위해 이 때를 위해 한인 크리스찬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셨고 미국의 각성과 회개와 회복과 부흥을 책임지라고 도전하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요엘2:12)" 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자기땅을 위해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곡식과 새포도나무와 기름을 마당과 독에 가득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대적들도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2:28)라고 대부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쇠퇴이나 부흥이나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국가적인 마음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위로 부터 부어주시는 부흥만이 이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부흥운동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50개 모든 주 마다 목사님들께서 중보기도자들을 인솔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도시마다 기도 운동이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도 교회마다 도시마다 미국에 대부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초청인: 한기홍, 김준근, 강순영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5월 한달 방문 하시는 분들에게 ALL THE REDS가 새겨진 멋진 T-SHIRTS를 드리며,  
저희 딜러에서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급 타월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입 하신 분 중 한분을 추천하여 42" PLASMA TV를 드립니다  
(경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바랍니다)

##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중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드리는 푸짐한 사은품과 함께  
태극 전사를 응원하세요!



## 5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999/12K 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대량 확보로 가격 및 모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85/3YR**  
(STK:053078)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T.D.O \$3,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57/3YR**  
(STK:101150)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999/12K 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07/3YR**  
(STK:028090)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T.D.O \$2,7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44/2YR**  
(STK:946788)



## 5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판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김 스티브 박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ose your income, we'll let you return it.